

## 2025 도서관의 날 · 도서관주간 공식주제 대국민 선호도 투표 안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25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주제 공모전 접수를 마감(2024. 10. 31. 목, 18:00까지)하였습니다.

접수된 후보 중 1차 심사를 거쳐 총 23편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23편의 후보작 중 국민 여러분이 참여해주시는 이번 온라인 선호도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을 선정합니다.

수상작은 2025년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안내 및 홍보 등 전반에 활용하게 되며, 특히 대상 1편은 공식주제로서 전국 도서관에 배포될 공식 포스터 제작 및 기타 홍보물 등에 활용됩니다.

투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표일시 : 2024. 11. 8.(금) ~ 11. 15.(금), 23:59 까지
2. 투표방법 : 구글폼 접속 ▶ 공식주제 후보 1개 투표 ▶ 제출  
※ URL : <https://forms.gle/jhdrPiprFvEsZp9j6>  
※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구글 로그인(필수)  
※ 악의적인 방법으로 중복 투표 등 심사 공정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심사기준

- 1) 도서관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담은 내용
- 2)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담은 내용
- 3)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행사에 어울리는 문구

### 4.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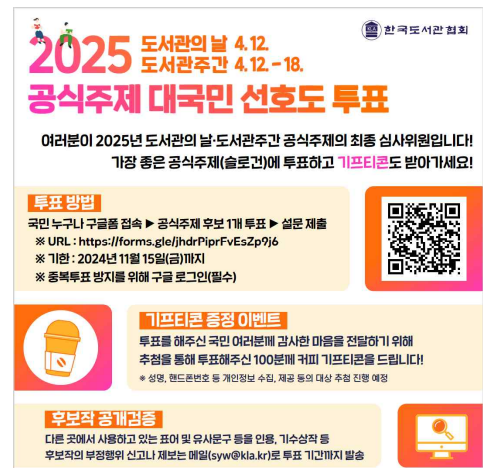
투표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투표해주신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성명,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 5. 후보작 공개검증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어 및 유사문구 등을 인용,  
기수상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개 검증을 함께 실시하오니, 문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나 제보는  
메일([syw@kla.kr](mailto:syw@kla.kr))로 투표 기간 내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상징하는 공식주제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전화 02-535-4489, 4459 이메일 [syw@kla.kr](mailto:syw@kla.kr))



한글도서관협회

2025 도서관의 날 4.12.  
도서관주간 4.12.-18.  
공식주제 대국민 선호도 투표

여러분이 2025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주제의 최종 심사위원입니다!  
가장 좋은 공식주제(슬로건)에 투표하고 기프티콘도 받아주세요!

**투표 방법**  
국민 누구나 구글폼 접속 ▶ 공식주제 후보 1개 투표 ▶ 설문 제출  
※ URL : <https://forms.gle/jhdrPiprFvEsZp9j6>  
※ 기한 : 2024년 11월 15일(금)까지  
※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구글 로그인(필수)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투표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투표해주신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성명,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 대상 추정 진행 예정

**후보작 공개검증**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어 및 유사문구 등을 인용, 기수상작 등  
후보작의 부정행위 신고나 제보는 메일([syw@kla.kr](mailto:syw@kla.kr))로 투표 기간까지 발송

주최 및 주관



## 문항 1 : 대국민 선호도 투표

1-1. 2025년 도서관의 날은 4월 12일(토)이며, 도서관주간은 4. 12.(토) ~ 4. 18.(금)임을 알고 계십니까?

※ 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 네, 알고 있습니다.
- 아니오, 모르고 있었습니다.

### 2025 도서관의 날 · 도서관주간 공식주제 공모전 최종 후보작

번호	주제명	후보작 주제 의미
1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도서관	가면 갈수록 많은 지식과 배움을 얻고 삶을 나아가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로 도서관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2	경험을 대며하고 세상을 읽는 공간, 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저자와 타인의 생각 및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점과 이런 경험이 쌓여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3	과거를 읽고 현재를 일구고 미래를 잇는 도서관	<p>&lt;과거를 읽고&gt; 도서관은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담긴 기록들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역사, 문화, 사상을 통해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p> <p>&lt;현재를 일구고&gt; 도서관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p> <p>&lt;미래를 잇는&gt; 도서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준비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보교육의 중심이 됩니다.</p> <p>이 강령은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이자 지식의 플랫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의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식과 문화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임을 의미합니다.</p>
4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p>이 문구에서는 '묻다'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p> <p>첫째, '묻다'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도서관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지식을 얻는 공간임을 강조합니다.</p> <p>둘째, '묻다'는 들건을 흙 속에 묻어 숨기는 의미로 사용되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씨앗을 도서관에서 심고 가꾸는 공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p> <p>"꿈을 키우는 씨앗"은 꿈이라는 것이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되어 점차 성장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국민들은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또는 다양한 이야기와 지식을 품고 들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 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씨앗은 햇빛, 물, 영양분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라듯, 꿈도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성장합니다. 국민들은 꿈의 씨앗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비옥한 땅과 같은 도서관에서 긍정적인 힘을 주는 독서인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p> <p>"꿈을 키우는 씨앗"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키우는 씨앗을 심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p>

5	나는 도서관에 놀러갔습니다.	<p>도서관을 책만 빌리러 간다고 생각하기보다 도서관 안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겁고 유의한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은 장소임을 홍보한다.</p> <p>예로 책을 바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책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볼 수 있는 컴퓨터시설도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문화행사나 프로그램도 자주 진행되고 있다. 또 도서관 안에 커피숍이 입점되어 있거나 도서관 주변으로 산책로나 나루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아 바쁜 현대시대에 커피와 함께 자연속에서 책을 보는 힐링의 시간이 가능하다.</p> <p>도서관은 책 빌리는 곳 혹은 책 보는 곳이라는 일면적인 생각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나 요소를 도서관의 날과 도서주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편안하고 여가를 보낼만한 곳으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p>
6	나를 읽다, 내일을 잇다, 도서관	<p>"나를 읽다, 내일을 잇다, 도서관"은 '읽다'와 '잇다'라는 단어의 발음 유사성을 활용하며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표현한 표어입니다. '나'로 표현되는 개인의 성장은 곧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의미로, 이 흐름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나를 읽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하고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능동적 행위로서의 독서를 의미합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라는 주체가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서관은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나를 읽다"는 개인의 내면 탐구와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읽기' 행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p> <p>"내일을 잇다"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잇다'는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도서관이 과거의 치혜와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연결 만을 뜻하지 않고,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p> <p>"나를 읽다, 내일을 잇다, 도서관"은 개인의 성장부터 공동체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 문구입니다.</p>
7	나의 하루가 자라는 도서관	<p>"나의 하루가 자라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의'라는 표현은 도서관이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개인화된 공간임을 나타냅니다. '하루'는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도서관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자라는'이란 표현에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있어, 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 삶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p> <p>이 문구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우리의 일상적 성장을 돕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자 배움터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도서관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공간이라는 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p> <p>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평생학습의 가치와 일상의 소중함을 반영하면서, 도서관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발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사 회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p>

8	넘실대는 슬기의 바다. 도서관	도서관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꽂혀 있는 책들에게서 느끼는 광활함과 장대함. 그 안에 들어있을 슬기와 지혜들. 움직이지 못하는 책들이지만 마치 넘실대는바다를결처럼 도서관은 독자들을 슬기롭게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혜의 불결이 기본 용게 독자를 격려주는 곳. 그런 곳이 도서관이기에 '넘실대는 슬기의 바다. 도서관'이라는 문구를 창안했습니다.
9	노벨문학을 담은 그곳, K- 라이브러리	문학과 도서관은 떼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통한 이슈를 넘어 한국도서관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	슬기로운 도서관, 품안圖書, 다독다독(多讀多讀)	나와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슬기'와 '품 안에서', 한자 '愛-親藏-多讀多讀'으로 라임을 맞춰 읽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든 슬로건으로 '슬기'와 '품안에서'의 '에'를 발음이 비슷한 한자 '사랑할 애(愛)'로 표기하고 '품안에서'의 '서'를 한자 '기록할 서(書)'로 표기하며, '따뜻이 어루만져 거듭 감싸고 달래다'라는 의미의 '다독다독' 한자 '多讀多讀'으로, 병기하며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슬로건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를 높일과 동시에 도서관 사랑, 독서사랑, 글사랑, 다독(多讀)의 중요성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11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문학의 숲, 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서의 의미 강조 : 독서는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실현 활동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여유롭게 독서를 하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합니다.</li> <li>2. 지역커뮤니티 역할 : 문학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든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죠. 도서관은 이 문학이라는 좋은 재료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3. 소속감 부여 : 갈수록 노령화는 심해지고 1인 가구도 늘어나 지역사회는 의로움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회사학교 친구 어느 하나도 경쟁이 심하지 않은 것이 없어 마음 기댈 그곳이 없는 상황이죠. 반면 문학은 누구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한다고 누가 돈을 내라고 하거나 보고서를 내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도서관이야말로 이 시대에 유일하게 지역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li> </ol>

12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 도서관	<p>이 주제는 도서관이 단순한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작점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p> <p>1. 개인의 성장과 이야기 : "당신의 이야기"라는 표현은 각 개인이 가진 독특한 경험과 꿈을 상징합니다. 도서관은 이러한 개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대독하는 장소를 넘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p> <p>2.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정보접근의 평등성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지적 성장에 기여합니다. 위협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합니다.</p> <p>3. 포용성과 다양성 :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은 여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처럼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p> <p>4. 미래지향적 메시지 : 이 주제는 단순히 과거의 정보나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서관은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도서관이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p> <p>5. 비주얼 표현 : 이 주제를 홍보물에 사용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하는 장면이나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읽기, 공부하기, 세미나, 문화행사 등)을 담은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과 편안한 디자인을 통해 도서관을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p>
13	도서관, 나와 세상이 서(書)트 만나는 곳	<p>도서관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나와 세상이 서로 만난다는 뜻과 글을 통해 나와 세상이 만난다는 등가적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p>

<p>14</p> <p>도서관, 다양성의 빛으로 미래를 밝힌다</p>	<p>이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의 진화하는 역할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가 공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p> <p>"다양성의 빛"이라는 표현은 도서관이 지식과 정주의 보고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관점, 사고방식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포용적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빛'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도서관이 지식과 희망의 등불이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밝히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p> <p>"미래를 밝힌다"라는 표현은 도서관이 단순히 현재의 지식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지역사회문화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p> <p>이 주제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사회적 포용성의 측면에서도 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 공간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셋째, 미래지향성의 측면에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기관임을 표명합니다.</p> <p>"도서관, 다양성의 빛으로 미래를 밝힌다"라는 주제는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민주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령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도서관이나 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주제를 통해 도서관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누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성숙에 이바지하는 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에도 부합합니다.</p>
<p>15</p> <p>마음속 빈칸을 채우는 곳, 도서관</p>	<p>마음속 빈칸을 채우는 곳, 도서관'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지식을 얻는 공간을 넘어, 마음속 빈 곳을 채워 주는 따뜻한 장소라는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고 삶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은 마음속 빈칸에 위로와 공감을 채워 주는 공간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p> <p>또한,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와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책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있어 자아실현과 성장의 원 동력이 됩니다. 도서관은 내면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p> <p>더불어 도서관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강의, 전시 등을 통해 연결되고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은 사회적 빈칸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p> <p>우리는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꿈꿉니다.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더 큰 가능성과 도전으로 향한 빈칸을 채워줍니다.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워주는 도서관의 역할을 '마음 빈칸을 채운다...'라는 표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p>

16	마음이 자라고 머무르는 숲, 도서관	<p>도서관 속 저마다 나란히, 가득히 자리하고 있는 책장 사이를 걸어갈 때면 때때로 숲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장르를 다루는 책들이 숨 쉬고 있는 모습은 숲속에서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연으로, 때로는 필연으로 책과 연을 맺습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가듯 책 속에서 펼쳐지는 길을 따라가며 어떤 날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같은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p> <p>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불안을 느끼며 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답혀 있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숨처럼 누구에게나 밀려 있는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쉬어가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사회의 정서적 안식처가 됩니다. 근래에는 독서모임, 도서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꽃피우는 모습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더욱 고민되고 단결되어 가는 사회에서 공동체가 소용하며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숲 속 자연이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듯 도서관은 끊임없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과정에서 사람들은 온온한 위로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p> <p>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숲을 우리는 돌로 거닐 때도 함께 나무를 심듯 가꿔 나가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돌로 있기에 오히려 흥만하고 함께 이기 예보다 행복 한순간들을 모두 경험합니다. '마음이 자라고 머무르는 숲, 도서관'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우리에게 언제나 머무를 수 있는 고요한 품을 기꺼이 내어주고, 마음이 한 떨씩 천천히 자라도록 해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17	봄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p>"봄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단순히 봄의 파스칼과 설렘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도서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시적으로 담아낸 주제입니다.</p> <p>1. 봄날의 생동감, 도서관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파스칼 햇볕, 푸릇푸릇한 새싹, 꿈망울의 터짐은 생명력과 희망찬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도서관 또한 봄처럼 활기 넘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내는 곳입니다. "봄날의 설렘"은 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의 모습을, 봄이 주는 활기와 연결하여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찬 기운을 불어넣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p> <p>2.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지식과 상상의 세계로      책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마법의 문과 같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풍부한 독서경험을 여행에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마치 여행자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듯, 독자는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임을 의미합니다.</p> <p>3. 2025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 도서관과 함께 새로운 시작      "봄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2025년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가기 늘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도서관을 방문하며 책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지식과 감동을 얻으며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p>

18	삼을 '열람'하고 지혜를 '연장'하는 것, 도서관	<p>삼을 '열람'하다 : 도서관은 다양한 책과 자료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열람'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교훈과 통찰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삼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p> <p>지혜를 '연장'하다 : 도서관은 지식을 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공간입니다. '연장'이라는 표현은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삼의 지혜를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학습과 성장을 지속해서 이어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p> <p>도서관의 역할 : 이 표어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삼을 돌아보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도서관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각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p>
19	"상상의 불길표, 지식의 느낌표, 도서관"	<p>1. 도서관은 모두가 상상과 지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강조합니다.</p> <p>2. 불길표와 느낌표라는 감각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장소로서의 도서관, 학습을 촉진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p> <p>3. 도서관이 제공하는 경험을 상상력과 지식의 두 축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서관의 매력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p>
20	세상을 열람하세요,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p>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지금이 한국인의 지적 혁명심이 가장 높고 선명하며 세상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한 사람의 세상을 넓혀준다면 그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열람이라는 단어가 공공성을 잘 띠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열람을 권장하는 문장으로 도서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포스터 제작 시에 포인트 색상이 들어가도 매력적일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었습니다.</p>
21	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	<p>"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그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의미가 있습니다.</p> <p>1. 시대를 읽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도서관의 역할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는 지식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최신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다"는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와 적응을 상징하며, 도서관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p> <p>2. 내일을 여는-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힘 도서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일을 여는"은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 위한 교육과 연구 의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보관소를 넘어, 혁신과 창조의 공간으로서 미래사회의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p>3.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이 주제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는 도서관이 현재와 미래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임을 상징합니다.</p> <p>이 주제는 도서관이 단순한 과거의 공간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의 허브로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부를 수행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p>



22	#오도완, 오날도 도서관 방문 완료	<p>2024년 한 해를 주도한 키워드는 '오운완(오늘도 운동 완료)'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생산적인 삶과 입장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삶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큰 세대입니다. #오운완, 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공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체력 증진과 자기만족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2025년에는 '오도완(오늘도 도서관 방문 완료)'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내어 인공하는 행위를 통해, 도서관 방문객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공을 하는 행위는 큰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공식 행사에 적합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p> <p>2025년을 주도할 키워드는 '오도완(오늘도 도서관 방문 완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p>
23	책이 건네는 한 줄, 도서관이 펼쳐는 세상	<p>"책이 건네는 한 줄, 도서관이 펼쳐는 세상"이라는 문구는 책과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인간이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존재하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세계인 책 한 줄과 거시적인 세상인 도서관 사이에는 독자, 즉 인간이 존재하며, 이 인간은 책을 읽음으로써 두 세계를 잇는 통로이자 연결 매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p> <p>미시와 거시를 잇는 인간 : 책 한 줄이 제공하는 작은 울림은 개인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 개인이 도서관을 통해서 큰 지식과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엿꿉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연결자로서의 역할과 미시적 경험과 거시적 가능성을 자신의 내면과 외부세계에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p> <p>책을 통한 연결 매체 :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넘어서,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다층적인 연결 매체 역할을 합니다. 한 줄의 문장을 통해 얻는 작은 깨달음이 독자를 도서관의 광대한 지식의 세계로 연결하고, 나아가 더 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p> <p>스스로와의 연결 : 책을 읽음으로써 인간은 자신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생각들이 책과 도서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큰 사유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큰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며, 개인의 성장과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p> <p>이 문구는 인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며, 책과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의 흐름 속에서 독자가 그 흐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책을 통해 미시와 거시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독자는 그 중심에서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는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1-2. 다음 중 2025년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 공식주제로 사용될 '문구 1개'를 선택해주시오(가나다순).

※ 심사기준

- 1) 도서관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담은 내용
- 2)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담은 내용
- 3)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행사에 어울리는 문구

※ 후보 문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구 원본이며,

당선작은 어법 검토 및 주최 측 의견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1.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도서관
- 2. 경험을 대여하고 세상을 읽는 공간, 도서관
- 3. 과거를 읽고 현재를 일구고 미래를 잇는 도서관
- 4.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 5. 나는 도서관에 놀러갑니다.
- 6. 나를 읽다, 내일을 잇다, 도서관
- 7. 나의 하루가 자라는 도서관
- 8. 넘실대는 슬기의 바다, 도서관
- 9. 노벨·문학을 담는 그릇, K-라이브러리
- 10. 늘 곁애 도서관, 품안애書 다독다독(多讀多讀)
- 11.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문학의 숲, 도서관
- 12.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 도서관
- 13. 도서관, 나와 세상이 서(書)로 만나는 곳
- 14. 도서관, 다양성의 빛으로 미래를 밝히다
- 15. 마음 속 빈칸을 채우는 곳, 도서관
- 16. 마음이 자라고 머무르는 숲, 도서관
- 17. 봄 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 18. 삶을 '열람'하고 지혜를 '연장'하는 곳, 도서관
- 19. "상상의 물결표, 지식의 느낌표, 도서관"
- 20. 세상을 열람하세요.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 21. 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
- 22. #오도완, 오늘도 도서관 방문 완료
- 23. 책이 건네는 한 줄, 도서관이 펼치는 세상

1-3. 기프트콘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예(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및 입력 단계로 이동)
- 아니오(2차 심사 결과에는 포함되나, 기프트콘 지급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

## 문항 2. 기프티콘 지급 이벤트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활용동의서

한국도서관협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2025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주제 2차 심사 기프티콘 지급 이벤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한국도서관협회는 2025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주제 2차 심사 기프티콘 지급 이벤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 핸드폰 번호 수집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커피 기프티콘 지급
- 이용 용도 : 지급 과정에서 제3차 기프티콘 구매 및 발송 온라인 업체에 휴대폰 번호 전달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고유식별정보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목적 달성 시)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이벤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2025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공식주제 2차 심사 기프티콘 지급 이벤트 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는 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동의 형태로 하단 서명은 설문조사 제출 시의 성명 기재로 같음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 년    월    일

성명 :    (서명)

2-1. (동의 필수)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날짜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 당일 선택

-----

2-2. (동의 필수) 개인정보 제공 활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경우, 응모자 성명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 형태로 성명 입력 시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합니다.

-----

2-3. 응모자 성명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2-4. 응모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입력해주신 핸드폰번호로 기프티콘이 지급이 되므로, 기프티콘 문자 수신이 가능한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양식 : 010-1234-5678(하이픈 포함할 것)

-----

2-5. 응모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 번호 오입력, 미발송 문제 발생 시 연락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요청드리오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5 도서관의 날 · 도서관주간 공식주제 공모전 최종 후보작

번호	주제명	후보작 주제 의미
1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도서관	가면 갈수록 많은 지식과 배움을 얻고 삶을 알아가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로 도서관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2	경험을 대여하고 세상을 읽는 공간, 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저자와 타인의 생각 및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점과 이런 경험이 쌓여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음.
3	과거를 읽고 현재를 일구고 미래를 잇는 도서관	<p>&lt;과거를 읽고&gt; 도서관은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담긴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역사, 문화, 사상을 통해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p> <p>&lt;현재를 일구고&gt; 도서관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p> <p>&lt;미래를 잇는&gt; 도서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준비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보교육의 중심이 됩니다.</p> <p>이 강령은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이자 지식의 플랫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의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식과 문화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임을 의미합니다.</p>
4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p>이 문구에서는 '묻다'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p> <p>첫째, '묻다'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도서관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지식을 얻는 공간임을 강조합니다.</p> <p>둘째, '묻다'는 물건을 흙 속에 묻어 숨기는 의미로 사용되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씨앗을 도서관에서 심고 가꾸는 공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p> <p>"꿈을 키우는 씨앗"은 꿈이라는 것이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되어 점차 성장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국민들은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또는 다양한 이야기와 지식을 묻고 들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 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p> <p>씨앗은 햇빛, 물, 영양분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라듯, 꿈도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성장합니다. 국민들은 꿈의 씨앗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비옥한 땅과 같은 도서관에서 긍정적인 힘을 주는 독서인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p> <p>"꿈을 키우는 씨앗"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키우는 씨앗을 심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p>

5	나는 도서관에 놀러갑니다.	<p>도서관을 책만 빌리러 간다고 생각하기보다 도서관 안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는 장소임을 홍보한다.</p> <p>예로 책을 바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책 뿐아니라 영상을 볼 수 있는 컴퓨터시설도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문화행사나 프로그램도 자주 진행되고 있다. 또 도서관 안에 커피숍이 입점되어 있거나 도서관 주변으로 산책로나 나무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아 바쁜 현대시대에 커피와 함께 자연속에서 책을 보는 힐링의 시간이 가능하다.</p> <p>도서관은 책 빌리는 곳 혹은 책 보는 곳이라는 일편적인 생각을 넓혀 다양한 활동이나 요소를 도서관의 날과 도서주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고 여가를 보낼만한 곳으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p>
6	나를 읽다, 내일을 읽다, 도서관	<p>"나를 읽다, 내일을 읽다, 도서관"은 '읽다'와 '잇다'라는 단어의 발음 유사성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표현한 포어입니다. '나'로 표현되는 개인의 성장은 곧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의미로, 이 흐름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나를 읽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하고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능동적 행위로서의 독서를 의미합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라는 주체가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서관은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나를 읽다"는 개인의 내면 탐구와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읽기' 행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p> <p>"내일을 읽다"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잇다'는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도서관이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연결 만을 뜻하지 않고,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p> <p>"나를 읽다, 내일을 읽다, 도서관"은 개인의 성장부터 공동체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 문구입니다.</p>
7	나의 하루가 자라는 도서관	<p>"나의 하루가 자라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의'라는 표현은 도서관이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개인화된 공간임을 나타냅니다. '하루'는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도서관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자라는'이란 표현에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있어, 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 삶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p> <p>이 문구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우리의 일상적 성장을 돕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자 배움터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도서관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공간이라는 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p> <p>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평생학습의 가치와 일상의 소중함을 반영하면서, 도서관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발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사 회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p>

8	넘실대는 슬기의 바다, 도서관	<p>도서관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꽂혀 있는 책들에게서 느끼는 광활함과 장대함, 그 안에 들어있을 슬기와 지혜들. 움직이지 못하는 책들이지만 마치 넘실대는바 다 물결처럼 도서관은 독자들을 슬기롭게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혜의 물결이 기분 좋게 독자를 적셔주는 곳. 그런 곳이 도서관이기에 '넘실대는 슬기의 바다, 도서관'이라는 문구를 창안했습니다</p>
9	노벨·문학을 담은 그릇, K-라이브러리	<p>문학과 도서관은 떼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통한 이슈를 업어 한국도서관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10	늘 곁애 도서관, 품안애書 다독다독(多讀多讀)	<p>나와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늘 곁애'와 '품 안에서', 한자 '애-愛書-多讀多讀'으로 라임을 맞춰 읽기 편하고 기억하기 좋게 만든 슬로건으로 '늘 곁애'와 '품안에서'의 '애'를 발음이 비슷한 한자 '사랑할 애(愛)'로 표기하고 '품안에서'의 '서'를 한자 '기록할 서(書)'로 표기하며, '따뜻이 어루만져 거듭 감싸고 달래다'라는 의미의 '다독다독'을 한자 '多讀多讀'으로 병기하여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슬로건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서관 사랑, 독서사랑, 글사랑, 다독(多讀)의 중요성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p>
11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문학의 숲, 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서의 의미 강조 : 독서는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실현 활동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여유롭게 독서를 하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합니다.</li> <li>2. 지역커뮤니티 역할 : 문학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든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죠. 도서관은 이 문학이라는 좋은 재료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3. 소속감 부여 : 갈수록 노령화는 심해지고 1인 가구도 늘어나 지역사회는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회사학교 친구 어느 하나도 경쟁이 심하지 않은 것이 없어 마음 기댈 그곳이 없는 상황이죠. 반면 문학은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한다고 누가 돈을 내라고 하거나 보고서를 내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도서관이야말로 이 시대에 유일하게 지역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li> </ol>

12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 도서관	<p>이 주제는 도서관이 단순한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작점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p> <p>1.개인의 성장과 이야기 : "당신의 이야기"라는 표현은 각 개인이 가진 독특한 경험과 꿈을 상징합니다. 도서관은 이러한 개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장소를 넘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p> <p>2.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가치 :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정보접근의 평등성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지적성장에 기여합니다. 이점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합니다.</p> <p>3.포용성과 다양성 : "시작되는공간"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은 여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처럼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p> <p>4.미래지향적 메시지 : 이 주제는 단순히 과거의 정보나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서관은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도서관이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p> <p>5.비주얼 표현 : 이 주제를 홍보물에 사용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하는 장면이나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읽기, 공부하기, 세미나, 문화행사 등)을 담은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과 편안한 디자인을 통해 도서관을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p>
13	도서관, 나와 세상이 서(書)로 만나는 곳	<p>도서관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나와 세상이 서로 만난다는 뜻과 글을 통해 나와 세상이 만난다는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p>



<p>14</p> <p>도서관, 다양성의 빛으로 미래를 밝히다</p>	<p>이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의 진화하는 역할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가 공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p> <p>"다양성의 빛"이라는 표현은 도서관이 지식과정주의보고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관점, 사고방식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포용적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빛'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도 서관이 지식과 희망의 등불이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밝히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p> <p>"미래를 밝힌다."라는 표현은 도서관이 단순히 현재의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도 서관은 전통적인 도서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지역사회문화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p> <p>이 주제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사회적 포용성의 측면에서도 서관이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 공간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셋째, 미래지향성의 측면에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기관임을 표명합니다.</p> <p>"도서관, 다양성의 빛으로 미래를 밝힌다."라는 주제는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민주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령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서관이나 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주제를 통해서도 서관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누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성숙에 이바지하는 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과도 부합합니다.</p>
<p>15</p> <p>마음 속 빈칸을 채우는 곳, 도서관</p>	<p>마음속 빈칸을 채우는 곳, 도서관'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지식을 얻는 공간을 넘어, 마음속 빈 곳을 채워 주는 따뜻한 장소라는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고 삶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은 마음속 빈칸에 위로와 공감을 채워 주는 공간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p> <p>또한,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와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책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있어 자아실현과 성장의원 동력이 됩니다. 도서관은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p> <p>더불어 도서관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강의, 전시 등을 통해 연결되고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은 사회적 빈칸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p> <p>우리는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꿈꿉니다. 도서관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은 더 큰 가능성과 도전을 향한 빈칸을 채워줍니다.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워주는 도서관의 역할을 '마음 빈칸을 채운다.' 라는 표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p>

16	마음이 자라고 머무르는 숲, 도서관	<p>도서관 속 저마다 나란히, 가득히 자리하고 있는 책장 사이를 걸어갈 때면 때때로 숲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장르를 다루는 책들이 숨 쉬고 있는 모습은 숲속에서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연으로, 때로는 필연으로 책과 연을 맺습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가듯 책 속에서 펼쳐지는 길을 따라가며 어떤 날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같은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p> <p>오늘 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방향으로 불안을 느끼며 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달혀 있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숲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쉬어가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사회의 정서적 안식처가 됩니다. 근래에는 독서모임, 도서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꽃피우는 모습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더욱 고립되고 단절되어 가는 사회에서 공동체가 소통하며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숲 속 자연이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듯 도서관은 끊임없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과정에서 사람들은 은은한 위로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p> <p>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숲을 우리는 홀로 거닐 때도 함께 나무를 심듯 가꿔 나가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홀로 있기에 오히려 충만하고 함께 이기 에보다 행복 한순간들을 모두 경험합니다. ‘마음이 자라고 머무르는 숲, 도서관’이라는 문구는 도서관이 우리에게 언제나 머무를 수 있는 고향한 품을 기꺼이 내어주고, 마음이 한 뼘씩 천천히 자라도록 해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17	봄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p>“봄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단순히 봄의 따스함과 설렘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도서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시적으로 담아낸 주제입니다.</p> <p>1. 봄날의 생동감, 도서관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따스한 햇볕, 푸릇 푸릇한 새싹, 꽃망울의 터짐은 생명력과 희망찬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도서관 또한 봄처럼 활기 넘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내는 곳입니다. “봄날의 설렘”은 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의 모습을, 봄이 주는 활기와 연결하여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찬 기운을 불어넣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p> <p>2.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지식과 상상의 세계로      책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마법의 문과 같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풍부한 독서경험을 여행에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마치 여행자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듯, 독자는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임을 의미합니다.</p> <p>3. 2025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도서관과 함께 새로운 시작      “봄날의 설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2025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가기 늘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지식과 감동을 얻으며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p>

18	삶을 '열람'하고 지혜를 '연장'하는 곳, 도서관	<p>삶을 '열람'하다 : 도서관은 다양한 책과 자료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열람'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교훈과 통찰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p> <p>지혜를 '연장'하다 : 도서관은 지식을 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공간입니다. '연장'이라는 표현은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지혜를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학습과 성장을 지속해서 이어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p> <p>도서관의 역할 : 이 표어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도서관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각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p>
19	"상상의 물결표, 지식의 느낌표, 도서관"	<p>1. 도서관은 모두가 상상과 지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강조합니다.</p> <p>2. 물결표와 느낌표라는 감각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장소로서의 도서관, 학습을 촉진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p> <p>3. 도서관이 제공하는 경험을 상상력과 지식의 두 축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서관의 매력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p>
20	세상을 열람하세요.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p>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지금이 한국인의 지적 허영심이 가장 높고 선명하며 세상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한 사람의 세상을 넓혀준다면 그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열람이라는 단어가 공공성을 잘 띠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열람을 권장하는 문장으로 도서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포스터로 제작 시에 포인트 색상이 들어가도 매끄러울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었습니다.</p>
21	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	<p>"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그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의미가 있습니다.</p> <p>1. 시대를 읽다-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도서관의 역할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는 지식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최신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다"는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와 적응을 상징하며, 도서관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p> <p>2. 내일을 열다-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의 힘 도서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일을 열다"는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연구 의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보관소를 넘어, 혁신과 창조의 공간으로서 미래사회의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p>3.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이 주제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대를 읽고, 내일을 여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는 도서관이 현재와 미래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임을 상징합니다.</p> <p>이 주제는 도서관이 단순한 과거의 공간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의 허브로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p>

22	#오도완, 오늘도 도서관 방문 완료	<p>2024년 한 해를 주도한 키워드는 ‘오운완(오늘도 운동 완료)’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생산적인 삶과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삶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큰 세대입니다. #오운완, 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증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체력 증진과 자기만족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2025년에는 ‘오도완(오늘도 도서관 방문 완료)’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내어 인증하는 행위를 통해, 도서관 방문객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는 행위는 큰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공식 행사에 적합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p> <p>2025년을 주도할 키워드는 ‘오도완(오늘도 도서관 방문 완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p>
23	책이 건네는 한 줄, 도서관이 펼치는 세상	<p>"책이 건네는 한 줄, 도서관이 펼치는 세상"이라는 문구는 책과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인간이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존재하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세계인 책 한 줄과 거시적인 세상인 도서관 사이에는 독자, 즉 인간이 존재하며, 이 인간은 책을 읽음으로써 두 세계를 잇는 통로이자 연결 매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p> <p>미시와 거시를 잇는 인간 : 책 한 줄이 제공하는 작은 울림은 개인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 개인이 도서관을 통해서도 큰 지식과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엿꿉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연결자로 처음과 미시적 경험과 거시적 가능성을 자신의 내면과 외부세계에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p> <p>책을 통한 연결 매체 :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넘어서,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다층적인 연결 매체 역할을 합니다. 한 줄의 문장을 통해 얻는 작은 깨달음이 독자를 도서관의 광대한 지식의 세계로 연결하고, 나아가 더 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p> <p>스스로와의 연결 : 책을 읽음으로써 인간은 자신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생각들이 책과 도서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도 큰 사유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큰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며, 개인의 성장과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p> <p>이 문구는 인간의 역할을 중심에 두며, 책과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의 흐름 속에서 독자가 그 둘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책을 통해 미시와 거시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독자는 그 중심에서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는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 ▶ 도서관주간 표어 역대 선정작

※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법정기념일 지정 전인 2022년까지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주관하여 도서관주간 표어(주제)를 선정함.

- 2024 대상(공식주제) |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구지연)  
최우수상1(표어) | 당신의 일상을 새로고침하는 곳, 도서관(박주용)  
최우수상2(표어) | 행복한 내가 되는 열쇠, 희망이 열리는 도서관(방수연)
- 2023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정찬종)  
고민을 반납하세요, 해답을 대여해드릴게요. -도서관- (이연주)  
도서관, 오늘의 이야기를 모아 내일을 꽃피우다(전현중)
- 2022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강남구립열린도서관)  
도서관에서 당신의 인생 한 장을 넘겨 보세요(강남구립행복한도서관)  
힘든 나날에도 도서관이 건네는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달성군립도서관)
- 2021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십포 하나, 도서관(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도서관, 책을 다독! 내 삶을 다독다독!(수성구립용학도서관)  
집콕 중인 당신, 도서관이 희망이 되어 드릴게요(박현희)
- 2020 도서관 책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대구광역시북구구수산도서관)  
도서관님이 당신의 인생을 팔로우합니다(강남구립열린도서관)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 도서관(관평도서관)
- 2019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달성군립도서관)  
꿈꾸는 자들의 핫 플레이스 #도서관(송실대학교 중앙도서관)  
늘 곁에 있는 도서관, 꿈꿀 수 있는 공간(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 2018 오늘은 책임기 좋은 날, 도서관 가는 날(서천도서관)  
내일을 꿈꾸는 행복의 광장, 도서관(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신수경)
- 2017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연천군중앙도서관)  
꿈을 클릭하고, 미래를 터치하는 도서관(경북대학교 도서관)  
멈춘 듯이 걷는 곳, 도서관(거창도서관)
- 2016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다누리도서관)  
펼치는 순간, 도서관의 힘은 시작됩니다(구립증산정보도서관)  
지식을 나누고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삶 터! 도서관!(장기섭)
- 2015 도서관,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충청남도평생교육원)  
꽃 피는 봄, 책 피는 도서관(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도서관으로 발걸음, 내일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박종범)
- 2014 도서관!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레는 동행(청주교육대학교 학술문화원)  
만지작꿈지樂 함께 즐겨요! 도서관(바른샘어린이도서관)  
365일 당신의 꿈을 향해 도서관이 함께 달립니다(경상북도립성주공공도서관)

- 2013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관이 함께 합니다.(경남고성도서관)  
 도서관 log-in, 꿈을 검색하다.(서울강동구립강일도서관)  
 나를 만나러 가는 또다른 세상, 도서관(전북전주시립도서관)
- 2012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관입니다.(인천광역시울목도서관)  
 책과 사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 도서관(화랑도서관)  
 도서관에서 당신의 꿈을 열람하세요.(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 2011 내 영혼의 러브 마크, 도서관(강소영)  
 사랑해요 도서관,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안양시립석수도서관)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관(박창현)
- 2010 성장하고 있는 나를 만난다. 나는 도서관에 있다.(서울시립대학교중앙도서관)  
 21C 문화놀이터, 도서관!(조현, 야탑고등학교도서관)  
 The Answer = Library(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 2009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관(이화여자대학교중앙도서관)  
 늘 숨쉬는 그곳, 행복을 주는 도서관(금나래아트홀도서관)  
 도서관,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성장 비타민(부산대학교도서관)
- 2008 도서관, 내일을 여는 행복한 즐거찾기!(김수현)  
 도서관 그곳에 가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김숙찬)  
 도서관, 내 삶의 포털(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2007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관(김명순)  
 내 인생의 멘토, 도서관(이해진)  
 어서오세요. 당신이 도서관 주인입니다(윤병훈)
- 2006 도서관,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황현경)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관에 있어요(정병진)  
 꿈이 열리는 창, 도서관(이인경)
- 2005 도서관은 당신께 귀한 선물이고 싶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정병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관(박정미)
- 2004 21세기 꿈과 희망의 실현, e-편한 도서관에서(정병진)  
 지식.정보.꿈@도서관(이순효)  
 당신이 도서관의 친구입니다(이해진)
- 2003 도서관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도서관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대를 열어갑니다
- 2002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아! 도서관에 가고 싶다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 도서관에서 미래를 개자
- 2001 도서관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  
 도서관, 지식정보시대 나의 경쟁력
- 2000 도서관, 꿈이 이루어지는 곳(dream @Library)  
 지식정보사회 나의 경쟁력, 도서관에서 키워갑니다

- 1999 도서관,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 1998 도서관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  
주름잡힌 우리경제, 도서관에서 희망있다
- 1997 함께하는 도서관 밝아지는 우리 미래  
열린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
- 1996 도서관,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회의 기수
- 1995 도서관, 생활속의 열린 문화공간
- 1994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 1993 열린도서관, 꽃피는 정신문화
- 1992 앞서가는 도서관, 밝아오는 미래사회
- 1991 도서관, 문화의 뿌리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 1990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지식
- 1989 도서관, 국민 문화복지의 요람
- 1988 도서관, 지혜의 샘
- 1987 도서관, 문화의 샘터
- 1986 도서관, 국민의 서재
- 1985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 1984 살아있는 도서관, 생동하는 국민정신
- 1983 봉사하는 도서관, 만족하는 국민의식
- 1982 도서관이 함께하는 정보사회
- 1981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전하는 시민사회
- 1980 도서관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찌우자

<1980년 이전 공식 표어>

도서관, 정보와 지식의 터전  
 문화와 창조의 열린 마당, 도서관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도서관,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관,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 봉사, 도서관 건립으로 이룩된다  
 국민의 곁으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열람봉사, 살아 숨쉬는 도서관 참고봉사  
 우리가 봉사하는 도서관,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20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관, 21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갑니다  
 도서관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같이 누리는 밝은 미래  
21세기 새 천년, 도서관이 그 희망입니다  
열린 도서관, 열린 학습, 열린 미래  
도서관에서 꽃피는 새로운 미래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관에서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도서관 생활은 행복이 주어지고 지혜가 얻어진다  
도서관은 문화인의 스승  
국민의 쉬운 도서관이용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정보(새 지식)